

“현대의 명저 번역, 더디고 부족하다”

「교수신문」 선정 ‘살아있는 세계석학’ 국내소개 현황

우리나라의 현직교수들은 현재 생존해 있는 세계적 석학들 중 인문·사회과학분야에서는 위르겐 하버마스를, 자연과학분야에서는 제임스 왓슨을 ‘걸어다니는 최고 지식인’으로 평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을 끈다. 이같은 사실은 「교수신문」(94년 1월 1일)에서 인문·사회·자연과학 3분야의 국내 저명교수에게 추천·선정을 의뢰한 결과 밝혀졌다.

이번에 제작된 ‘세계석학지도’에 의하면, 인문과학 분야의 경우 위르겐 하버마스, 리처드 로티, 힐러리 파트남, 폴 리피르, 토마스 쿤, 자크 데리다 등이 선정됐으며,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위르겐 하버마스가 ‘2관왕’을 차지한 것을 비롯하여 존 롤즈, 밀튼 프리드만, 칼 포퍼, 임마누엘 월러스타인, 안소니 기드슨 등이 ‘학문적 高峰’인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제임스 왓슨, 스티븐 와이버그, 스티븐 호킹, 스티븐 굴드, 일리아 프리고진 순서로 등위가 매겨졌다. 그밖에 도노암 촘스키, 레비스트로스, 가다머, 부르디외, 에코, 화학자 호프만, 수학자 몽돌브로, 조셉 니덤 등이 물망에 올랐으나 이렇저런 이유로 인해 최종낙점에서는 제외됐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국내 추천·선정교수가 분야별로 각각 11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과 최종적으로 선정된 세계석학들의 전공이 철학 분야에 편중됐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를테면 인문과학 ‘베스트 6’ 모두의 전공이 철학이고, 사회과학은 6명중 절반이 또한 철학전공자이다.

우리 학계의 ‘신원보증’을 받은 그들의 저서는 얼마나 번역됐을까. 우선 자연과학의 경우, ‘세계석학지도’ 제작에 참여했던 임경순 교수(포항공대·과학사)에 의하면 “그 정도면 충분하다.” 자연과학 분야의 석학으로 꼽힌 이들의 대중적·계몽적 저술들은 “거의 번역이 다 됐다”는 것. 자연과학의 전문적 학술서들은 전공자라면 원서로 이미 읽었을테고 일반대중은 굳이 읽을 필요가 없으므로 “번역이 되더라도 별 의미가 없는” 책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저술은 번역의 황무지 상태에 가깝다. 특히 인문과학의 리처드 로티, 폴 리피르, 자크 데리다의 책은 단한권도 번역되지 않았다(자크 데리다의 「입장」(박성창 역, 술)은 그의 ‘학문적 主著’라기보다는 인터뷰 기사모음집 성격의 것이어서 대표성을 갖기 힘든 책에 속한다). 리피르의 대표적 저서인 「시간과 설화’, 스티븐 와이버

살아있는 세계석학의 저작 중 국내 번역된 책 목록

저 자	책 제목	역 자	출 판 사
위르겐 하버마스	인식과 관심 이성적인 사회를 향하여 이론과 실천 사회과학의 논리 후기 자본주의 정당성 연구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진화 이데올로기로서의 기술과 과학	강영계 장일조 홍윤기·이정원 박성수 문학과사회연구 심연수 하석용·이유선	고려원 종로서적 종로서적 문예출판사 청하 청하 이성과현실
리처드 로티			
힐러리 파트남	이성·진리·역사	김효명	민음사
폴 리피르			
토마스 쿤	과학혁명의 구조	조 형 김명자	이화여대출판부 동아출판사
자크 데리다			
존 롤즈	공정으로서의 정의 사회정의론	황경식 황경식	서광사 서광사
밀튼 프리드만	통화안정의 방안 정부로부터의 자유 선택의 자유 자본주의와 자유 돈의 이야기	정도성 서기원 민병균 외 최정표 김병주	계축문화사 협동연구원 협동연구원 형설출판사 고려원
칼 포퍼	열린사회와 그 적들 I·II 역사주의의 빈곤	이한규·이명현 이석윤	민음사 벽호

저 자	책 제목	역 자	출 판 사
임마누엘 월러스타인	세계체제론 역사적 체제로서의 자본주의 역사적 자본주의/ 자본주의 문명	정진영 배손근 나종일·백영경	나남 나남 창작과비평사
안소니 기드슨	민족국가와 폭력 현대사회학 정치사회이론연구 자본주의와 현대사회이론 비판사회학 사적유물론의 현대적 비판 막스베버의 정치사회학	진덕규 김미숙 외 김중섭 임영일 외 박영신 외 최병두 김성건	삼영사 을유문화사 민영사 한길사 현상과인식 나남 민영사
왓슨	유전자의 분자생물학 이중나선	고상균 외 하두봉	탐구당 전파과학사
스티븐 와이버그	처음 3분간	김용채	전파과학사
스티븐 호킹	시간의 역사 시간과 화살 시간은 항상 미래로 흐르는가	현정준 김성원 과학세대	삼성출판사 두레 우리시대사
프리고진	혼돈속의 질서	유기풍 외	민음사 외
스티븐 굴드	다윈 이후	홍동선·홍옥희	범양사

(교보문고 제공)

그가 「처음 3분간」 이후 10년만에 써낸 「亞원자 입자의 발견」은 3월중 민음사에서 번역출간될 예정이다. 데리다의 명저 「그라마톨로지」와 최신작 「막스의 유령」은 「어디선가」 번역작업을 진행중이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지만 「언제」 출간될 것인지는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인문·사회과학분야의 ‘당대의 명저’들이 더디게 소개되는 이유는 “문교부에서 교수들의 번역물을 연구업적으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요약된다. 서강대 철학과 강영안 교수는 “「교수신문」에 소개된 인물들은 ‘대중적 철학자’이므로 그 정도나마 많이 소개된 축에 속한다”며 “그밖의 많은 석학들의 명저는 번역이 전무한 상태”라고 말한다. 또 다른 교수는 “헤겔·맑스·칸트, 다산·원효·퇴계 등의 번역전집도 없다”며 “국가에서 국

책사업의 일환으로 번역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주지 못하는 형편이라면, 적어도 번역물을 학문적 업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최신 학술서의 번역이 더딘 두번째 원인은 우리 학계가 지독히 ‘칸막이화’되어 있어서 學際的 저술을 번역할 인력이 드물다는 것이다. ‘그랜드 시오리(Grand theory)’를 지향하는 현대학문의 추세를 국내의 ‘博士’ 아닌 ‘狹士’들이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 역시 교육제도와 교육과정의 혁신이 전제돼야 치유가 가능한 고질적 ‘한국병’ 중의 하나인 셈이다.

출판사와 독자의 ‘직무유기’를 꼽는 학자들도 있다. 출판계의 상업주의가 학문적 아카데미즘을 잡아먹고 있어서 ‘두껍고 어려운 책’은 번역을 해도 빛을 보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민음사 이영준 주간은 “학자들의 모험”이라며 “명저로 평가되는 저술이라면 최소한 2,30개 출판사들이 달려들 것”이라고 일축한다. 그러나 독자들의 직무유기 죄목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일례로 우리나라에서 철학과가 설치된 대학은 46곳. 대부분 석·박사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면, 초판에 천부 가량 찍는 세계적 철학책 정도는 소화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한편,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학능력이 출중해서 외국 유명학술서의 번역이 불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소박한 의문에 대해 신광영교수(한림대·사회학)는 “유럽이나 미국의 학자들은 우리보다 어학실력이 짝아서 그렇게 부지런히 서로의 책을 번역하겠는가”고 반문했다.

—김중식 기자